

[시티 & 피쳐]

■ 첫 한가위 맞는 금호동 '사랑의 뒤주'

독거노인... 소년가장... 배고픈 이웃 누구나
퍼가도 퍼가도 항상 그득

독거노인 김모(73·광주시 서구 금호동) 할머니는 명절이나 찾아온 가족들이 몇 해 전부터는 그나마 나타나지 않아 시름이 빠졌다. 거동도 자유롭지 않아 바깥 나들이도 어렵다.
이 사연을 알게 된 금호1동사무소 직원들은 '사랑의 뒤주'에서 6kg의 쌀을 퍼다 드렸다고 한다.
광주시 서구 금호1동사무소 현관에 지난 1월 25일 만들어진 '사랑의 뒤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하루 15~20명의 주민이 '사랑의 뒤주'에서 '정'을 퍼간다.
'사랑의 뒤주'가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화수분'이 된 데는 후원자들의 도움이 컸다. 지난 2월 이래 매달 현금과 쌀 포대를 전달하는 개인·단체는 2곳에

불우시설 등 지금까지 6,270kg 전달
잇따른 작은 정성, 이웃들엔 큰 힘

서 13곳으로 늘었고, 지금까지 총 6천270kg의 쌀이 뒤주를 거쳐갔다.
선정기업 15포대(1포대 20kg)를 비롯 ▲LG 에어컨 10포대 ▲OK자동차 운전학원 2포대 ▲송죽고을 3포대 ▲시영1단지 마트 1포대 ▲서광병원 20만 원 ▲성심치과 10만 원 ▲아로레무용영양소 7만 원 ▲세브란스약국 5만 원 ▲금호이비인후과 5만 원 등이 매달 뒤주에 담긴다. 익명의 후원자 2명은 달마다 각각 35만원과 쌀 1포대를 맡고 있다.
주민들의 작은 정성도 큰 힘이 된다. 얼마 되지 않는 양이지만 손수 집에서 쌀을 가져와 붓는 사람도 있고, 동사무소 후원계좌를 통해 작은 정성을 보태는 사람도 있다. 현대판 '운조루(雲鳥樓·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 8호) 뒤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운조루'는 영조 52년(1776년) 낙안군수 류이주(柳爾周)가 세운 99칸짜리 한옥으로 이 곳에 있는 흥나무 뒤주는 주민들에게 쌀을 나눠줬던 이 집안 선형의 증



금호 1동 사무소 직원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쌀을 갖다주기 위해 '사랑의 뒤주'에서 쌀을 퍼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표토 전에 내려오고 있다.
이영진 금호1동장은 "가끔 젊은 실업자나 노숙자들이 찾아와 몸시 미안해 하며 쌀을 퍼가는 모습을 볼 때는 안타깝다"며 "현재 22포대 분량의 쌀이 남아있는데, 이 쌀을 가져가는 손길도, 다시 쌀을 채워주는 주민들의 온정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대형유통업체 원산지미표시 47건 적발

광주시 물가관리 합동단속

광주지역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들이 원산지 미표시 등 부당행위를 하다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광주시는 3일 "명절을 앞두고 추석 물가관리 합동 단속 결과 모두 47건을 적발, 행정처분과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E마트의 경우 중국산 등산용 지팡이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한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버섯도 실상을 표시하지 않아 단속됐다. L백화점도 공산품 원산지를

부적합하게 표시해 적발됐다.
E마트에서는 갈비세트를 과대포장해 판매하다 적발, 시정조치 됐으며 대부분 유통매장의 즉석 조리제품은 덮개 미설치 등 청결관리 부적절 등이 지적됐다. 시는 일선 구청과 국제청, 경찰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8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지도·단속을 폈다.
광주시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한 상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경연대회
광주 동구보건소 최우수상

방문보건시스템 호평
북구보건소는 장려상

광주시 동구 보건소가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가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인 'U-Health'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광주시 동구 보건소(소장 박형철)는 최근 광주에서 열린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경연대회'에 모바일 방문보건시스템인 'U-Health'를 출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방문요구 서비스·가족 건강관리·병력 관리·방문간호 서비스를 예약하는 디지털화된 보건정보 시스템이다. 방문

보건 활동을 할 때 환자의 정보를 바로 전산 등록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해 진단·처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 첨단 웹톱(One-stop) 서비스이다.
심사위원들은 "이 시스템은 공공의료 부문에서 환자 중심의 보건 서비스라는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상자의 의료정보를 기관 내 공유에서 지역간 공유→국가내 공유→국제간 공유로 발전시켜 건강정보 인프라를 조성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북구 보건소는 '노후가 행복한 보건의료서비스'라는 주제로 '보건으로 서비스만'을 운영, 거동불편 노인과 취약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보건료 서비스를 시행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사랑나눔운동'

직원 자원봉사단 '메트로나눔미' 발대식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영원)는 지난 2일 직원 자원봉사단인 '메트로 나눔미' 발대식을 갖고 사랑 나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날 발대식을 계기로, 월 1회 일정의 후원금을 '평강의 집', '양지사회복지관'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후원을 하기로 했다. 또 분기별로 사회봉사활동 등을 방문해 묵묵, 청소, 세탁, 환경정리 등 노력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앞서 지난 9월 24일 광산구 소재 사회

복지시설을 방문해 청소 등 환경정리, 말벗해드리기 활동을 펼치는 등 가을 들어 7차례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밖에 3년째 매월 일정액을 모아 불우이웃 시설에 기탁하고 있고, 급여의 천원 미만을 불우이웃성금으로 기탁하는 '천미(千米)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영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큰 기쁨을 드리도록 다양한 사회환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생활안내

Table with 2 columns: 교통안내 (Public Transport) and 신고 (New Information). Includes details on bus routes, fares, and other local services.

Advertisement for 'Jeonju Bientale' (전주비엔날레) featuring a restaurant 'Jeonju Bientale' (전주비엔날레) with a focus on traditional Korean cuisine and a special 'Jeonju Bientale' (전주비엔날레) menu.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Bientale' (전주비엔날레) featuring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Includes sections for 'Jeonju Bientale' (전주비엔날레), 'Jeonju Bientale' (전주비엔날레), and 'Jeonju Bientale' (전주비엔날레).